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 '전북 제철제맛'

10일까지 온라인몰 거시기장터서 5월 제철 하우스 수미햇감자 진행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북 대표 농식품 온라인몰 거시기장터에서 제철농산물 크라우드 펀딩, '제철제맛' 감자편을 진행한다.

5월 '전북 제철제맛'으로 선정된 하우스 수미햇감자는 단단하고 쫄쫄한 식감이 기대를 모으는 품목이다.

특히, 김제 광활지역은 봄 감자 30년 주산지 중 한 곳이다.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가

제철농산물의 제맛에 투자하고, 농가는 다음 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농산물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실시간 모으고 혜택을 제공받는 개념이다.

과거 단순 공동 구매방식이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카카오 톡톡 등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화했다.

최근 개성있는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

고 있다.

참여 방법은 소비자가 거시기장터에서 6일~10일 사이 해당 감자를 주문하고, 목표 주문량 달성할 경우, 농가는 주문에 맞춰 수확 후 11일과 12일에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20% 기본 할인에 제휴카드 10% 추가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등을 더할 경우, 각 수확한 햇감자 10kg을 1만9,000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다.

향후, '전북도 제철제맛'을 통해 소비자 만족은 물론, 온라인 판매가 낮

선 농가는 소포장, 고객응대 등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온라인몰의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은 첫 시도이자, 지난 4월 테마맞춤형 기획전인 '흔바리의 밥상'에 이은 두 번째 변화"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농가와 소상공인이 적응하도록 3개 기관이 온라인 통합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시기장터 홈페이지(www.jopkaza.com) 또는 고객센터(070-4176-9299)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택내장비 보급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전북도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관리요원, 소방서(119)에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택내장비'를 보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올해 7,779가구의 택내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8,321가구를 추가 발굴해 차세대 택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작년에는 무주 지역 1,532가구의 택내 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 독거노인 200가구를 추가 발굴해 차세대 택내 장비를 설치했다.

도는 이번 차세대 택내 장비 보급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자 및 시정·군수가 건강상태를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김현욱 도 노인복지과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택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간판개선사업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 진행

전북도는 6일 간판개선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주대학교 주승 교수, 호원대학교 이지수 교수, 전주대학교 신익수 교수, 예원예술대학교의 김경실 교수 등 도내 간판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4명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이미지를 형상화해 간판 디자인 컨셉트와 시안을 제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협의회와 협업체를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이 정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

지 못하고 획일화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도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카드를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전북도는 2022년 공모사업에 4개소 선정과 국비 10억원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오는 7월 예정된 공모 선정 발표에 앞서 전북도는 8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전북도는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면 총사업비 18억원 규모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리 지역 고유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도는 2021년도 전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은 전체 2,477명이 응시했고, 그 중 581명(공채327, 경제254)이 합격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화재진압(남) 309명, 화재진압(여) 18명, 소방관련학과(남) 39명, 소방관련학과(여) 13명, 구급(남) 87명, 구급(여) 30명, 구조(남) 64명, 화재(남) 2명, 차량정비(남) 2명, 기관사(남) 10명, 건축(남) 1명, 정보통신(남여공통) 6명이다.

도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석가탄신일(5.19.)을 제외한 6일 동안 체력시험을 도청 지하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유호상 기자

체력시험 종목은 악력, 배근력, 앞아 윗목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 등 6개 종목이다.

종목당 10점 만점에 총점 60점 만점으로 총점의 50%(3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오후 각 50여명 정도만 입실하도록 일정을 조정했고, 매시간 환기하는 등 시험 전·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년 체력시험에서 부상 및 점수미달의 사유로 20% 정도 불합격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레지오넬라증 감염 주의하세요”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확진자·사망자 발생에 감시 활동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최근 도내 레지오넬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검사대상은 도내 대형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수도꼭지 냉·온수와 분수 등이다.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설의 경우, 청소와 소독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1~2주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등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형태로 흡입돼 감염된다.

'레지오넬라증'은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지만, 사람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폰타리열의 형태로 주로 발생하나 만성폐질환자,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50세 이상, 흡연자 등에서 잘 발생하는 레지오넬라

페렴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C에서 번식하고, 37~42°C에서 급증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철이 아닌 때에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 수영장 물놀이 시설의 에어로졸 발생 시설과 레지오넬라균 고위험군이 이용되는 요양병원 등의 배관, 급수시설이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이 있는 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고, 특히 25~45°C에서 잘 증식하므로 냉각탑, 병원이나 공동주택의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의 욕조수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전북 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도 센터)와 전북 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전북새일센터)는 6일 농어촌 구직자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경영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 센터는 전북새일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 및 사업 연계 활동으로 농어촌 지역 일자리·일거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관에 등록된 구인자,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지역 내 다양한 인재들이 적합한 일자리·일거리를 찾고, 지역 경영체에는 필요한 인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전북 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6일 농어촌 구직자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경영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 예정이다.

추진하는 다양한 취·창업 관련 교육 아울러, 도 센터는 전북새일센터가 사업을 지역민에게 홍보하고, 취·창

/유호상 기자

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지원사업인 '자격과정 이음' 사업을 진행해 교육 수요자 대상, 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 센터는 '지역민 일자리·일거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귀촌인들이 농업 농촌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 일 경험만 아닌 이론 교육과 선진사례 현장 탐사 등 농어촌 정착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마련하는 '농어촌 워킹홀리데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조호일 도 농촌활력과장은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협력과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추진 등 농어촌 일자리·일거리 연계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제시 공고 제2021-390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요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요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김제 도시관리계획(요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 위치 : 김제시 요촌동 566-3번지 일원
 - 나. 요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
 - 지구단위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참조(홍)소식/참여)시정소식)고시/공고)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계획 생략(열람 장소 비치)
- 주민의견 청취사항
 - 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계획과
 -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김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등으로 공람기간내 제출 (전화 : 063-540-3346, FAX : 063-540-3171)
 - 라.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7일 김제시청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242-14, 산 246-2, 산 248-1, 산 249
- 분묘기수: 12기
-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및 공동주택 사업용
- 안치기간: 10년
- 안치장소: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 석곡로 436-34 군산시 추모관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방법: 부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입회개장 유연분묘-협의개장
- 신고처: (유)토우산업개발 010-3659-9255
-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공사 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

2021년 5월 7일
위 공고인 (유)토우산업개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